

# 정완규, 소통 능력 시험대... “카드수수료 제도 개편 필요”

(여신금융협회장)

금융권, 동결 또는 인하 전망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 우려

카드업계 재산정주기 연장 기대  
“점진적 합리적 결과는 나와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이 시험대에 올랐다.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제도가 정착한 이래 한 번도 인상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카드업계의 목소리를 금융당국에 전달해야 하는 등 어깨가 무겁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는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호주, 미국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제도를 비교하고



연말 가맹점수수료 조정 여부를 앞두고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뉴스시스

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정 회장과 서지용 신용카드학회 회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가맹점수수료 재산정 주기 개편을 주장했다.

특히 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대졸에 의존하고 있는 카드사의 수익 구조를 언급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오는 연말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발표를 앞두고 정 회장이 직접발언을 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올해도 가맹점수수료가 동결되거나 내릴 것이라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가맹점수수료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인상을 내놓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지난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재산정 제도 폐지를 주장했지만,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여전업계 또한 정 회장이 가맹점수수료 인상을 이끌어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는 점이다. 가맹점수수료 인상은 소상공인과 마찰이 불가

피할뿐더러 금융당국 또한 눈치를 보아야 하는 만큼 여신협회장의 소통 능력이 분수령으로 작용한다. 카드업계에선 정 회장이 취임사에서 발표한 여전업계 수익성 제고 청사진과 비교하면 아쉽다는 평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협회의 역할은 결국 업권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금융권의 특성상 보수적인 접근이 불가피하지만 만지안해 고공리를 겪은 만큼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협회 간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만큼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수수료율이 언급될 수 있는 만큼 각사와 가맹점 간 소통이 요구된다는 해석이다.

카드사들 또한 수수료율 동결과 재산

정 주기 연장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추세다.

장기적으로는 개맹점수수료와 연회비 등 본업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간 카드업계는 ‘값을수록 손해’라는 말을 유행처럼 사용한 바 있다. 현재 카드사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부과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각각 0.5%, 0.25%다. 판관비를 감안하면 적자라는 입장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90% 넘는 사업자가 영세가맹점이다. 더 이상 수수료율을 내릴 여력은 없다”며 “카드사가 이자 수익에 의존하게 된 배경도 수수료율에 있으며 점진적으로는 일반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외산차·고가차 늘자 수리비도 ‘헉’... 車보험 손해율 쑥

대물배상 손해율 85.1%, 자차 85.5%  
부품값 안정화·자기부담금 확대 필요

차량수리비 상승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부품비가 전체 차량수리비 상승률을 웃돌면서 부품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등 차량수리 관련 담보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 부품

비 증가의 영향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손해율은 지난 2023년 1분기 75.8%, 74.6%에서 4분기 85.1%, 85.5%로 높아졌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등 차량수리 관련 담보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 사고 건당 손해액 증가가 꼽힌다. 손해액의 대부분은 차량수리비인데 구성요소 중 부품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차량수리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차량수리비의 연평균 상승률은 3.7%였으나 부품비는 4.5%로 전체 차량수리비 상승률을 상

회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차량수리비 구성요소 중 부품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차량수리비 상승을 견인했다”며 “차량의 고급화 및 대형화로 차량 가격이 상승했고 특히 외산차 비중도 크게 늘어 관련 차량 부품가격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부품비 및 차량수리비 상승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손해율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79.6%에서 5월 80%로 높아졌고 전기차 화재와 9월 폭우로 인해

손해율은 더 상승할 전망이다.

손해율 상승으로 차보험료 인상 압력도 높아지면서 부품가격 안정화 및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 범위 확대 등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제조사의 부품 의무공급기간을 8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따른 재고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차량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내 자기부담금은 지난 2010년 비례공제방식을 도입한 이후 올해까지 통상 20만~50만원의 설정금액이 유지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자기부담금 범위를 통상 500~1000달러(약 67만~135만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고급차량 소유주의 30%는 1000달러 이상의 자기부담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 연구위원과 전 선임연구위원은 “부품 의무공급기간이 실제 부품 보유 및 재고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모듈화된 제품의 공급단위가 축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수리 등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

## 서울 집값 30주째 ↑ 매수심리 소폭 반등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0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이번주 소폭 올랐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오르면서 30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하락했다. 10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6으로 전주(101.1)보다 0.5포인트 올랐다. 9월 셋째 주부터 5주째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번주 약간 올랐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전반적인 매수심리 위축되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 및 신축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발생해 전체 상승폭은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신한은행 김광수 고객솔루션 그룹장(오른쪽 첫번째), 신한카드 박창훈 Payment 그룹장(왼쪽 첫번째), 교통은행 서울지점 황위선 대표가 협약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 중서 SOL트래블카드 QR결제 가능해진다

신한銀-中교통銀 업무협약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 시작

신한은행은 신한카드, 중국 교통은행과 중국 내 ‘SOL트래블 카드 QR 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교통은행은 중국 5개 국유대형상업은행으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지점을 두고 있다.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중국 위안화 결제대금의 정산 및 결제를 대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국에서 ‘SOL트래블 카드 QR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고 중국에서의 결제 편의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SOL트래블 카드’ 보유 고객은 중국에서 스마트폰의 ‘SOL페이’ 앱을 이용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신한은행과 교통은행은 위안화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신한카드는 카드 거래 및 QR코드 생성 분야를, 교통은행은 중국 QR 결제기관인 NUCC와 카드 정산 분야를 담당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n

## 한화포레나, ‘안면인식 로비폰’ 도입

다양한 높이·거리도 빠른 인식  
향후 분양 단지에 점진적 적용

한화 건설부문은 한화포레나(FORENA) 아파트에 ‘스마트 안면인식 로비폰’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 안면인식 로비폰은 별도의 카드키 없이 입주인 안면 모습을 빠르게 인식하는 공동현관 출입 시스템이다.

기존 로비폰의 경우 카드키 소지에 대한 번거로움과 분실위험, 다수 이용자로 인한 방역 및 위생 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스마트 안면인식 로비폰 도입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등학생 저학년,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니버설 디자인(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한 범용적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2m에 달하는 거리 및 반경에서도 빠른 인식이 가능해 입주인 편의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한 허위 인증을 방지하는 ‘위변조방지(anti-spoofing) 기술’을 적용해 외부인 출입 통제

를 강화했으며, 로비 출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호출되는 원패스 시스템으로 입주인의 편의를 한 층 더 높였다.

김민석 한화 건설부문 김민석 건축사업본부장은 “스마트 안면인식 로비폰을 통해 고객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화포레나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및 상품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안면인식 로비폰은 향후 분양되는 한화포레나 단지에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한화 건설부문은 국내 최초 전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포레나EV 어스테이션’,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에어커튼’, 스마트 기능을 현대언어플리 케이션과 연동시킨 ‘포레나 홈 IoT’ 등 다양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

한화포레나는 올 하반기 고양원당1구역, 부산당리 등 3000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